

연중 제 16 주일

기도서 395 면

제 1 독서 : 예 레 23, 1-6
 제 2 독서 : 예 케 2, 13-18
 복 음 : 마 르 6, 30-34

숲 정 이

발행 원 주 교 전 주 교 구
 편 집 사 목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⑤ 5098 ③ 3201

강론



위대한 목자

전 대 복 신 부

제 1 독서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상하자. 야훼께서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다(사무 하 7, 8).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더라도(사무 하 11장)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는 목자로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살로몬은 왕권의 위세를 부리며 사치와 욕정의 쾌락을 얻고자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야훼 하나님께 대한 경신례를 무시하며 이교인들의 신전을 건립하므로 외적으로는 백성들간의 민심을 갈라지게 하였고,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남쪽으로는 유다왕국,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양분되는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처참한 분열 현상을 목격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실태를 고발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심히 꾸짖으면서 장차 모든 백성을 재통일시키는 위대한 목자가 태어나리라는 희망을 말해준다. "이 저주 받은 것들이,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이야, 양떼의 말을 들어라.....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흩뜨려서 헤메게 하니 너희의 그 폐쇄한 소행을 어찌 별하지 않고 두겠느냐.....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주리라(예레 23, 1-4).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뜻을 귀히 알아야 하며, 그 뜻을 좇아 봉사자로 처신해야 할 목자와 통치자들이 도리어 손에 잡히는 종과 칼을 마구 휘두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자기들 의권자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런 비정한 통치자들에게도 "이 저주받은 것들이야,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버리는 것들이" 하시며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모두 다 회개하자. 머리에 재를 쓰고 마음을 찢으면서 참 목자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야 하며 백성들이 원한다면 기꺼워 권좌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셨으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휴식을 포기하신 예수처럼(마르 6, 30-34).....

<고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춤추는 반칙

스페인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의 열풍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선발된 팀들의 경기인지라 불만했다. 시원스러운 강슛은 무더위의 짜증을 덜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커다란 명예가 걸린 시합인지라 적절한(?) 반칙도 나왔다. 헛걸음 쥘린 다급한 공격은 일단 차단하겠다는 일념으로 몸을 던져서 반칙을 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저질러진 반칙에 대해서는 심판으로부터 벌칙이 주어졌다. 걸수를 잃기에 꼭 알맞는 페널티 킥도 주어지고, 경고나 퇴장의 판정이 내리기도 한다. 저지른 반칙에는 그에 상당한 벌칙을 주어 형평을 이루자는 것이다.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매사에 반칙이 없을 수는 없나 보다. 또 어떤 특별한 운동경기에는 가벼운 반칙이 있어야 재미를 느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글썽다. 어쨌든 할 수 있는대로 반칙은 없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반칙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지고, 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진자들은 그 힘을 이용하여, 눈에 들어오게 반칙을 해낸다. 운동경기의 판정을 조작하기 위하여 심판을 매수하기도 한다. 이번 월드컵 축구의 수퍼 스타로 각광을 받은 선수도 승부를 조작했다고 해서 말썽을 빚은 바가 있었다. 심지어는 신성해야 할 교육계조차도 몇 년전까지 예체능계의 입학시험에서 실기 평가에 말썽이 있다고 시끄러웠다. 그런가 하면 부정선거의 문제때문에는 또 얼마나 피흐름이 있었던가! 문제는 바로 가진 자들에게 있다. 칼자루를 천대로 흔들어대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 숲정이의 배포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렵다.

숲 정 이 산 채



공부 많이 합시다!



'82 하곡 수매에 대한

성 명 서

정부는 '82년 하곡 수매가를 지난해 수매가 가마당 29,700원(정곡 2등급, 76.5kg)보다 7% 높은 31,780원으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수매가 인상율은 지난 1년간의 도매물가 인상율 2.6%, 소비자물가 4.4% 보다 높은 인상율로서 수매가는 생산비가 충분히 보장되는 값이며 가마당 2,000원의 생산 장려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급된 수매가는 농수산부가 발표한 지난해 보리 생산비 33,905원 보다도 낮은 값이며, 인상율은 지난 1년간(81년 5월~82년 4월) 농가 구입 가격 지수 인상율 16%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직접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비료 등 농업용품값 인상율 27.6%의 4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우기 가마당 2,000원을 덧붙여 이를 생산 장려금 지원이라 하여 농민에게 마치 큰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소위 장려금을 수매가와 합쳐도 지난해의 생산비도 안되는 낮은 수매가인데도 이를 장려금이라는 미명으로 생색내고 있음은 한 마디로 낮은 수매가를 은폐하고 또다시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노입과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통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에 바탕으로 기업편중 특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통화증발 인플레이, 투기 등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하여 1조원이 넘는 직접적인 혜택과 수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희생을 당해온 1천만 농민의 하곡수매가 결정에 있어서는 1% 인상에 20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데도 '한 자리 물가 안정'이라는 상투적인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의 생산비도 안되는 값으로 결정했다.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출미가는 20.6%나 인상하면서 물가안정을 구실로 수매가 7% 인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농민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처사이다. 진정 당면한 경제 위기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농지세 인하,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 등을 통한 농촌 구매력을 향상시켜 국내 수요의 활성화를 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하곡 수매가에 대한 생산비 보장 정책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지금 국민경제의 기초 산업인 농업과 농가경제는 농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과 특히 지난해 최고로 낮았던 쌀 수매가와 엄청난 위기도 입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저 농

산물 가격 정책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농민은 연간소득을 넘는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농은 급증하여 이농율은 최고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의 의령경찰관의 농민 학살사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정치권력과 관련된 장애인 거액 어음 사건 등 금력과 권력이 결탁하여 저지른 일련의 사태는 그 최종적 피해를 농민과 근로대중에 전가시키고 농민의 삶의 의욕마저 잃어 버리게 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통한 영농 의욕 증진과 농가경제 향상 정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지난해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상 최저 수매가로 결정할 것은 식량부족과 농가경제 빈곤 심화는 물론 농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오히려 당면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생산비도 보장 안되는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한때 남아돌았던 보리는 정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해마다 적자를 보아 재배기피로 자급도는 72.7%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전체 식량자급도는 이제 43.2%로 크게 떨어졌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량의 이같은 절대적인 대외 의존은 세계 식량부족 현상이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주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정책당국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면서 농가경제와 식량자급 기반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자급은 구호나 말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획기적인 생산의욕 증진과 농가 구매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정책 없이는 부채 속에 허덕이는 농가경제 향상과 식량자급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농가경제와 농업의 발전없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본회는 실의에 빠진 농민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음으로써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 생산자로서의 긍지와 의욕을 갖고 생산활동을 하여 식량자급과 당면한 국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 이상으로 하곡수매가를 제조정할 것과 농지세 인하, 비료 농약 등 각종 영농 자재값 인하 등 농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식량생산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 이상으로 매년 추하곡 수매가를 예상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982. 7. 1.
한국 가톨릭 농민회

강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아는

전 일 관 광

전 화 ③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용 이
안내합니다

어머! 핸드백 탠디 전문점

핸드백 · 보조가방 · 악세사리 · 지갑 · 화장품(라피네(20% 할인) · 피어리스) · 남 녀 패스보드 · 벨트 · 벡타이

수입품 주문 구입 환영
※ 20~30% 할인 판매중

전주우체국 후문 옆 서 발도로메오(인쇄)
전화 ③ 6 5 0 6

프랑스 수입종 렉스 토끼 분양

*색깔이 다양하고 교우며 부드러운 털
*초보자, 국민학생도 사육 가능
*수매 단가: 성토모피 10,000원~15,000원(10월~2월 까지)

*분양 가격은 영가 제공하겠음

분양 장소: 전주시 덕진동 1가 1327-16(2동 1반)
(덕진공원 후문 테니스장, 수영장 옆 덕암리 마을)
전화 ③ 3 5 9 1 최 병우(암브로시오)



□ 교구장 착좌준비 착수

착좌식 : 8월 10일 오전 11시, 해성 중·고 강당에서

제 6대 전주 교구장으로 선임되신 박 정일 주교님의 착좌식을 앞두고 교구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정식으로 착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7월 6일 1차 모임과 12일 2차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세부준비에 착수, 전 교형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선 주교님의 뜻에 따라 착좌식을 순교성지 교구답게 8월 10일(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축일) 오전 11시 숲정이 해성 중·고 대강당에서 거행키로 하고, 지도위원장 김 환철 신부님과 준비위원장 양 상렬 회장님 주도 하에 7개 실무부서를 두어 면밀히 준비 진행토록 했다.

앞으로 자세한 협조사항은 신부님들과 회장님들을 통해 수시 전달될 것이겠지만, 아무쪼록 전 교우들이 보다 큰 관심과 성원으로 뜻깊은 행사가 잘 이뤄질 수 있게 기쁜 협력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주시내 회장단과 성가대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고 싶다.

□ 「숲정이」가 또 증발됐다!

지난주 숲정이(주보) 503호가 또다시 모 기관의 지시에 의해 발송 차단 수난을 겪고 있다. 전주시내를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주보가 우체국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 작태가 한심하다.

이유인 즉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6.14일자)를 전면제재한 탓이란다. 특히 도덕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현정권의 퇴진의 용단을 바란다는 제7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선정(善政)을 위해 책임을 묻고 각성을 촉구하는 민주국민의 소리가 그렇게도 거슬리는가? 건전한 비판을 우국충정의 발로로 받아들이는 수렴의 자세가 아쉽다.

□ 제8회 중·고 교리 경시 대회

일 시 : 82년 8월 22일 11시, 장 소 : 각 본당

대 상 : 본당 소속 중·고 학생 전원

출제 범위 : 한국 천주교회사-주교 받은 이야기로 된-저자/이 원순, 발행/탐구당, 가격/1,800원(책은 성바오로 서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팔마·황등·용안 본당 꾸리아 창립

팔마본당은 기존 레지오를 해체하고 구역별로 16개의 pr을 조직 꼬미씨움 주관으로 연수회를 가졌다. 또한 황등본당은 7월 11일 전신자 레지오 일일 연수회를 성황리에 실시하고 14개의 pr으로 '천상의 모후' 꾸리아를 창설하였다.

1년 전까지 2개의 pr에 불과했던 용안본당은 주임 신부님의 넘치는 열의로 현재 15개로 늘어났으며, 농번기 농촌 사정에도 주회 출석률이 100%이다. 7월 4일 레지오 연수회를 마치고 '천주의 성모' 꾸리아를 창립하고 초대 단장에 이 만수(말딩)씨를 선출하였다. 이들을 굽어보시는 성모님, 환한 미소로 격려하시며 매일의 삶이 더욱 당신과 닮게 이끄실 것이다.

요심이 (467) 김병오



교우의 식당

味 滿 회 관

(舊. 쇠꼬리랑 집)

단체·연회식·냉난방 완비

정성을 다해 양심껏 모시겠습니다.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북은행 후문 앞

협성아케이트 뒷집

전화 ㉠ 9301

김기봉(배나시오)

주단·포묵(홀수·회갑웃)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펜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땀 제거(독일수입품)

하 이 도 난

□ 사마귀 제거

베 루 말

전주 시민약국

전화 4-0009

3-3338

중앙시장 입구

약사 김병의(마넬로)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용)

남 베로니카

전주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어

전화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공소지도자 연수회: 일시-19일<월> 오후 1시~22일 정오. 장소-가톨릭 센터 ※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교리교사 하계 연수회: 일시-22일<목>오후1시~24일, 장소-가톨릭 센터, (도시 8,500원, 지골 8,000원)
3. M. B. W 목상회: 일시-26일<월>~29일,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모든 신자들
접수-사목국, 회비-2만원
4. 통신서서 연수회(구약): 일시-8월 2일<월>~5일, 대상-정규생, 성서 공부하시는 분
접수-성바로 서원, 회비-15,000원, 접수마감-25일, 선착순 30명
5. 제1지구 학생회장단 회의: 일시-17일<토> 오후 2시~18일, 장소-고양 천주교회
※ 1지구 학생 수련회를 위한 모임
6. 슬라이드, 영화 대여: 여름방학을 맞아 수련회, 어린이 여름학교 등 기타 모임에서 사용할 시청자 자료를
교구 사목국에서 대여합니다

(중앙)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박인호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에베리아 1장-7장
1. 성당건립 헌금 신입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다: 고재상(150만원), 김기용·양도면(각 100만원), 방춘원(70만원), 허태사·김정남·송묘순·박한숙·양승진·정문영·주정자·이장호(각 50만원), 송근형·이복남·박준웅·임남래·정명자·이창환(각 30만원), 이인순(25만원), 진성진·유영호·조준영·강수남(각 20만원), 김재춘·권수남·박원구·김경순·박원기·김연준·이동식·장금례·하경호·최현심·박원순·안경애·정만덕·은윤학(각 10만원), 안재홍·곽준남·장순규(각 15만원), 한성준(2만5천원), 이해룡(4만원), 김정자·마금진(각 3만원), 최점배·이화춘(각 7만원), 이쌍룡(3천원), 강희선(5천원), 이영래·여덕자·강안순·오영홍·이유금·문정남(각 5만원), 허남순(1만원)
- 지난주 봉헌금: 668,610원 교무금: 334,500원

- 발, 장소-다솜주일 확정 발표,
 지참물-미사준비·필기도구·세면도구·취사도구
 인솔자-신부님·부제·학사님·사도인원·부녀대표
4. 다음주: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홍윤자
 - 지난주 봉헌금: 390,520원

(서학동)

전화 ②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김명환

1. 할머니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 영성체 교리: 26일<월>부터 실시합니다
 시간-오전 9시~10시까지, 첫영성체 못한이들 꼭...
 3. 어린이 합창단: 26일<월>부터 성가연습 있습니다
 시간-11시~12시까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중·고생 수련회: 일시-7월 27일~30일(3박 4일)
 장소-무주 앞섬, 참가비-1인당 2,000원
 5.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일, 청년반-오전 9시, 노인반-오전 11시(공식미사 후), 중·고생반-오후 6시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낙균 ②차상원
- 지난주 봉헌금: 242,115원 교무금: 273,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26일<월>~31일<토>까지, 본당 및 아파트-매일 오전 9~12시, 장소-매일 오후 2~5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마리아 빨리: 24일<토>~27일<화>(3박 4일간), 장소-대구 효성여자대학교, 참가대상-고등학교 이상, 희망학생은 서수녀님께 22일까지 접수하세요(참가비 8천원)
 3. 본당 웅변대회: 원고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내용-①말씀의 체험, ②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4.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오브리서 하야고보서 전체
 5. 성가정회 모임: 21일<수> 저녁미사 후
 6. 대학생 모임: 매주<금> 저녁미사 후
 7. 교무금 납부의 날: 교무금은 밀리지 않도록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369,84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검

1.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하기 교리안내·일시-19일~24일까지, 1주간 오후 6시30분, 대상-대학생·중·고등학교생·교리교사
 3. 주일학교 아동 하기교리 안내: 일시-26일~31일까지 오전 8시30분, 대상-유치원 어린이~국교 6학년
 4. 요안회 월례회: 25일 공식미사 후
 5.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김영채·이종상
 기도-강원모
 6. 미사참례자 안내: 황화순, 유봉례, 오귀례, 오옥동
 유희자, 반경자
- 지난주 봉헌금: 402,67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찰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월례회: 할머니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2.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8월 1일 공식미사 후
 영적 물적 예물은 사무실에서, 접수는 25일까지
 3. 젊은이들 모임 변경: 일요일~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지도 안신부님)
 4. 중·고생 하기수련회: 일시-27일~30일(3박 4일), 장소-진안군 정천면 오정리, 회비-3천원, 대상-본당내 중·고생 및 예비자
 5. 예언자의 모후 구리아 옥외행사: 25일 8시 미사후, 본당에서 단체출발, 장소-투배, 버스 대절
 6. 예비자 교리: 8월부터 시작
 1세배 1인 인도서약서 꼭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7. 6월말 결산: 예산-31,685,500원, 수입-15,038,381원, 지출-14,268,250원,
 잔고-770,131원
- 지난주 봉헌금: 532,750원

(전동)

전화 신부 ①6208
 사모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4. 주일학교 6학년 수련회: 19일~21일
 장소-고산천, 참가비-2천원, 쌀 1리
 5. 주일학교 하계교리 교리책: 500원
 6. 젊은이 하기수련회: 24일~27일-진안 모정리
 7. 중·고생 하기수련회: 27일~30일
 8. 첫 영성체 교리: 23일 오후 5시
 9. 신축기금: 유영문(12만원), 은순상(3만원), 정영호(2만원), 김일영·이순자·이재원·강일교(각1만원)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현재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540,47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8월 2~7일 오전 9~12시
 준비물-미사책·미사포·필기도구
3. 학생회 하기수련회: 28~31일(3박 4일) 오전 9시 출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주일학교 특별교리: 26일~31일(여름 성경학교)
 2. 첫 영성체 교리: 30일<금>부터 8월 12일<목>까지
 첫 영성체는 13일<금> 어머니미사시 있겠습니다
 3. 중·고 하기수련회: 7월말 주일후 있을 예정입니다
 4. 1·2·3번 행사에 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5. "원죄없으신 모후" 베레시디움 부단장님 박베드로
 씨: 11일 밤 11시에 별세하시었습니다. 기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68,330원 교무금: 170,000원